



보도 일시	2023. 3. 15.(수) 11:00 < 3.16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3. 15.(수)
담당 부서	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지원과	책임자	과 장 문준선 (044-203-5280)
		사무관	이수연 (044-203-5286)
		사무관	이수홍 (044-203-5282)

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 개최

- 영국 신규원전 참여방안 등 원전협력 논의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3월 15일(수) 더 플라자 호텔(서울)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*(Department for Energy, Security and Net Zero)와 「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」를 개최했다.

* '23.2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(BEIS)에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(DESNZ)로 개편

< 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 개요 >

- 일시 / 장소 : '23.3.15.(수) 14:00~18:00 / 서울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 홀
- 참석자 : (韓)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, 원전수출지원과장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, 원전수출산업협회 등
(英)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 원전담당국장, 원전해체청, 원자력규제청 등
- 안건 : 원전정책 공유, 원전분야(핵연료, 원전해체, SMR 등 차세대원전, 핵융합) 협력논의

-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*에는,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(Chris Heffer)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우리측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과 영국측 원전해체청, 원자력규제청 등 관계기업·기관이 참석하였다.

* '13.11월 체결한 「포괄적 원전협력 MOU」에 따라 총 4차례('14, '15, '17, '20) 개최

-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원전 정책을 공유하고, 영국의 신규원전 건설, 원전해체, 핵연료, 소형모듈원전(SMR), 핵융합 등 다양한 원전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영국은 2022년 4월에 「에너지안보전략」을 통해, 총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2020년 15%에서 2050년 25%로 확대(설비용량 기준 24GW)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-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, 원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- 산업부 이승렬 국장은 “영국은 1956년 최초의 상업원전을 가동한 원전 종주국으로, 고리원전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우리와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왔다”고 언급하고, “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원전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크리스 헤퍼 국장도 금번 회의를 계기로 우방국인 한국과 원전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”고 언급했다.